하루에 250km를 뛰고

그다음 날 또 250km를 뛸 수 있어요

밥만 딱 주고 재우고 일어나면

250km를 또 뛸 수 있어요

'우리 개는 왜 그러죠?'

250km를 안 뛰어서 그래요

[견종백과 : 알래스칸 말라뮤트 편]

안녕하세요

제가 말라뮤트 훈련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 털에

압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견종은

[겨울이 : 말라뮤트, 2세] 알래스카 말라뮤트입니다

**말라뮤트의 색깔?**

[말라뮤트의 색깔?] 이 친구는 색깔이... 우리가 보통

검정색 하얀색으로 대칭이 되어 있는 무늬의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이 친구는 레드 앤 화이트를 갖고 있고요

너무 고혹적이지 않습니까?

눈 색깔은 황갈색을 갖고 있습니다

노란색인데 살짝 진한 노란색

그 색깔을 많이 갖고 있고

오드아이라고 하는 눈은 말라뮤트들은 없습니다

혹시 말라뮤트인데 눈이 허스키 같다?

그러면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라뮤트의 운동량?**

[말라뮤트의 운동량?] 말라뮤트나 허스키 그리고 사모예드 이런 개들의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루에 250km를 뛰고

그다음 날 또 250km를 뛸 수 있어요

밥만 딱 주고 재우고 일어나면

250km를 또 뛸 수 있어요

[(약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 여러분들은 250km를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250km를 운전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얘네는) 뛸 수 있어요

얘네들이 근육이 조금 남달라요

[(하루에 마라톤 5번 할 수 있음)] 실제로 오래 뛸 수 있는 그런 근육을 갖고 있고

그렇게 뛰어야만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개는 왜 그러죠?'

250km를 안 뛰어서 그래요

**말라뮤트와 허스키의 차이점?**

[말라뮤트와 허스키의 차이점?] 시베리안 허스키하고 말라뮤트하고 차이가 있다면

시베리안 허스키는 헌팅 드라이브가 강해요

한마디로 수렵성이 강하다는 거거든요

수렵성이 강한 애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보호자에 대한 애착 관계가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허스키들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네가 내 주인이면 주인이고'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말라뮤트는

약간 애정도 있고요

보호자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조금 있어요

분리불안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말라뮤트가 분리불안이 있죠?

진짜 문 뜯고 나갑니다

[(문 뜯기 직전.jpg)] 문 정도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말라뮤트 키우는 난이도?]

**말라뮤트 키우는 난이도?**

8.7점/10점

기본적으로 파손율이 좀 높기 때문에

비글은 경량급 레슬러 같은 거라면

얘는 중량급 프로 레슬러 같은 느낌이어서

8.7점의 난이도가 아닐까

치명적인 게 하나 또 있다면

털이 진짜... 말을 말아야 돼

저는 털을 밀면 '아유 왜 밀었어요' 라고 하는데

사모예드하고 말라뮤트가 털을 밀었으면

이해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털이 진짜 많이 빠져요

1년 내내 빠지고 검정색 옷을 입기 힘드실 거예요

돌돌이는 필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일어나시면 돼요

아유 잘 잤다

그 외에 운동시켜주시는 거 기본적인 훈련

그것만 잘 된다면 문제없이 살 거예요

**말라뮤트의 여름?**

[말라뮤트의 여름?] 한국의 여름은 진짜 이 친구들한테 위험해요

지금도 별거 한 거 없어요

간식 먹고 여기서 1.5m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더워하잖아요

여름에는 뙤약볕에 이 친구를 10분만 둔다면

정말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할 수 있고요

보호자님 중에 한 분은

여름 내내 24시간 에어컨을 꼭 틀어놓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에어컨을 안 틀면

하루종일 혀가 한 5cm는 더 내려와요

더 퍼지고

여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말라뮤트 키우시는 분들?

**말라뮤트의 겨울?**

[말라뮤트의 겨울?] 겨울 되면 영하 10도 되죠?

'운동하기 좋은 날씨다'라고 할 거예요

저번에 어떤 보호자님

말라뮤트 키우시는데 옷 입히고 왔더라고요

제가 엄청 웃었어요

아우 말라뮤트를 뭐 하러 옷 입혀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다들 입히니까 나도 좀 해봤어요

개는 죽으려고 그래

영하 13도였는데 옷 입히니까

헤엑헤엑 그러더라고요

**말라뮤트의 성격?**

[말라뮤트의 성격?] 덩치에 비해 애교도 되게 많고요

보호자를 생각하는 마음도 되게 깊고

그런데 수컷 말라뮤트들의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은 특징인데요

intermale aggression이라고 해서

수컷 공격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더러 있어요

애견 운동장이나 그런 곳에서

좀 까부는 친구를 만나면

꼭 혼내주고 싶어 하거나

좀 껴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서

'니 주인 되게 재밌다 간식 있냐?' 그러면

옆에서 푹 때릴 거예요

힘과 힘의 대결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컷들은 그걸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라뮤트의 질병?]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라뮤트의 질병?**

이게 살짝 빠진다거나

헐겁다거나 이럴 때

공간이 생기다 보면은

뒷다리가 아프고

퇴행성 같은 경우에는 흠집이 나고 상처가 나면

뼈들이 뾰족뾰족 나서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통증을 느껴하는 그게 좀 많아요

그래서 고관절 이형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조금 많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여름이 있잖아요

비도 이렇게 잦게 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타구니쪽

이쪽에 습진이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진흙 같은 데나 아니면 흙이

(발에) 좀 오랫동안 묻어있을 경우에

발바닥 습진 같은 게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말라뮤트 예비 보호자에게 하고 싶은 말?] 한번 종로에 사신다면

병점까지 걸어갔다 와보세요

**To.말라뮤트 예비보호자**

[(대충 41km)]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나?'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내가 털을 얼마나 좋아하나

'나 진짜 털 러버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To.말라뮤트 보호자**

[말라뮤트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에게 하고 싶은 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 전부예요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말라뮤트를 한마디로?**

[말라뮤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키우지 마세요

누가 병점까지 갔다 오겠어요